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0년도 제33호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최속현 선수 사건

잊히지 않길...

운동모습 SNS 올리고

이어갈 주자 지명

프로젝트 '움직' 챌린지



문체부, 경찰청,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비리와 체육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흐 IOC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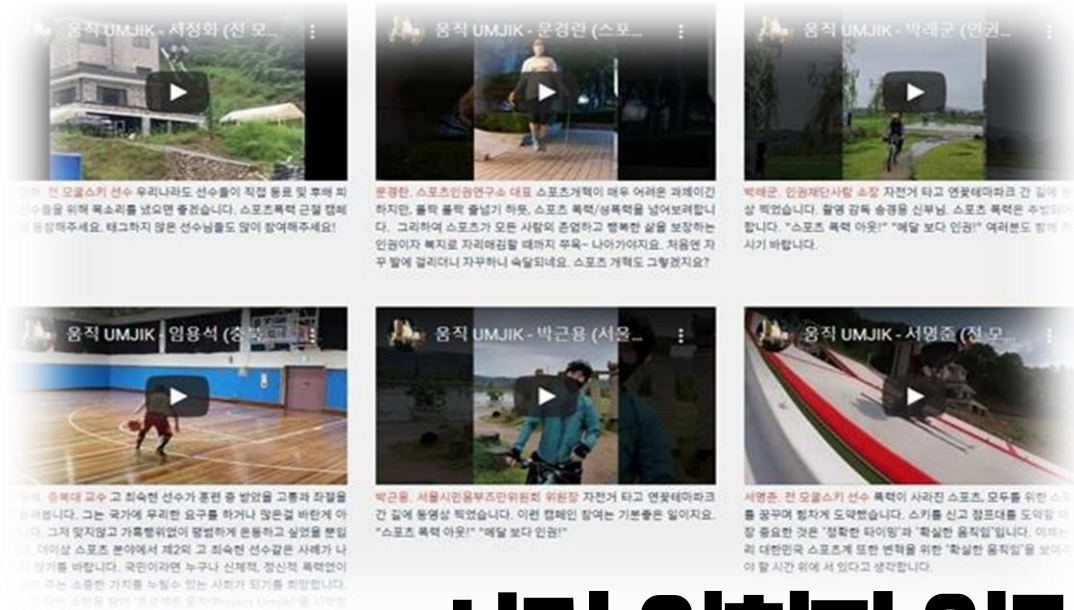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강한 자신감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

간소화되어 치러질 것
현재 안전과 방역에
어려움 있는 상태





최속현 선수

사건 잊히지 않길... '프로젝트 움직임' 챌린지

체육계 시민단체가 감독과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 경주시청 소속 최속현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선수를 잊지 않기 위한 챌린지를 시작했다.

24일 '철인3종 선수 사망 사건 진상조사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위)는 "최 선수 사건이 점점 잊히고, 또다시 흐지부지 지나가는 것을 막고자 '프로젝트 움직임' 챌린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6일 최 선수는 지인들과 어머니에게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부산 동래구의 숙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프로젝트 움직임' 챌린지는 평소 자신이 즐기는 운동 영상을 촬영해 스포츠 폭력을 뿌리 뽑자는 의미의 짧은 글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다음에 이어갈 세 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푸시업을 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몸을 밀어내듯 스포츠계 악습을 힘껏 밀어내자'는 의미를 담은 식이다. 프로젝트 이름인 '움직'은 대한민국 스포츠계에서 폭력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담아 움직임이라는 의미다. 지난 16일 시작한 챌린지는 24일 기준 22명이 참여했다.

챌린지에 참여한 사람들은 최 선수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동메달리스트 정승환 선수는 "선수로서 스포츠계 폭력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신용욱 육상선수는 "17년간 선수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바뀌는 것은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지속적으로 많은 선수가 목소리를 내야 조금이라도 바뀔 듯하다"고 참여 취지를 설명했다. 신 선수는 최 선수가 사망한 6월 26일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로 6.26km를 달리는 모습을 촬영했다.

앞서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 선배 선수 등이 재판에 넘겨지고, 국회에서도 '최속현법'이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단의 결과도 발표됐다. 그러나 훈련과 교육을 빙자한 체육계 구타와 폭력은 바뀌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용철 서강대 스포츠심리학과 교수는 "폭력이 반복되는 체육계의 고질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선수들은 또다시 선수 생명을 걸어야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비슷한 부조리를 겪어도 점점 더 말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 보호 및 비리 근절 위한 업무협약식

일시 2020. 9. 23일 | 장소 서울특별시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장



노컷뉴스
오혜원 기자 2020.09.24

문체부, 스포츠비리와 체육인 인권침해 근절 MOU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서울시 서대문구 구세군빌딩의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비리와 체육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과 송민헌 경찰청 차장,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이 참석해 기관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종 조사, 조사기법 공유 및 조사관 교육, 전문조사관 선발 및 우수조사 인력 확보 등의 협력을 약속했다.

최윤희 차관은 "경찰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고발하는 범죄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경찰청과 스포츠윤리센터가 24시간 협조하는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상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송민헌 차장은 "경찰의 풍부한 조사 비법(노하우)을 공유하고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체육계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보탬 것"이라고 밝혔다.

이숙진 이사장은 "피해자 중심 신고 상담 조사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 인권보호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호 협력해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hwwho@cbs.co.kr



IOC위원장 “고맙게도 스포츠 진행, 도쿄올림픽 자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다시금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바흐 위원장은 22일(현지 시간) '올림픽과 코로나'라는 제목의 서한을 IOC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4월 '올림픽과 코로나' 서한 이후 두 번째 메시지다.

이 서한에서 바흐 위원장은 "지난 4월 첫 메시지 이후 스포츠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경제적 영향으로 우리의 메시지가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스포츠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싸우는 필수적 요소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의 필수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바흐 위원장은 코로나19에도 진행 중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들을 주목했다. 그는 "고맙게도 스포츠 행사가 다시 열리고 있다"면서 "이어지는 제한에도 우리는 스포츠가 안전하게 조직될 수 있다는 점도 안다"고 짚었다.

결국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바흐 위원장은 "진행 중인 스포츠 행사들은 우리 모두에게 2020 도쿄올림픽을 포함한 향후 행사를 위한 준비에 자신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바흐 위원장은 "올해 안으로 승인된 백신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신호가 있다"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러운 낙관론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도쿄올림픽은 당초 지난 7월 24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바흐 위원장과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지난 3월 올림픽을 내년 7월 23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해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어 내년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airjr@cbs.co.kr



1년 연기' 도쿄올림픽, 간소화되어 치러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이 간소화되어 치러진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최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회담을 통해 내년 여름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을 두고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바흐 위원장에게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이”라며 협력을 부탁했고 바흐 위원장 역시 “도쿄올림픽은 역사적인 대회다. 반드시 힘을 합쳐 도쿄올림픽을 성공시키자”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의지대로 도쿄올림픽이 정상 개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일본 복수 매체들은 최근 보도에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조직위)가 대회를 축소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조직위가 마련한 간소화 방안에는 참가 인원 규모를 10~15%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회식과 폐회식에 참석하는 인원 역시 당초 계획보다 20% 줄어든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12일간 펼쳐지는 성화봉송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전언이다. 대신 조직위는 성화 봉송 관련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선수촌과 선수들의 연습장 사이를 오가는 셔틀버스 역시 운행 숫자가 줄어들며 출입국 관련 수속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조직위는 축소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들을 간소화해 대회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은 내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개최된다. 총 33개 종목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도쿄올림픽은 제 32번째 하계 올림픽이기도 하다. 한편 일본 NHK는 “일본 당국이 도쿄올림픽 기간 안전과 방역에 대해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상태다”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henry412@sports-g.com

[금주의 스포츠 관련 기사]

추석맞이 지역축제 금지... 모든 스포츠 무관중 진행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98355&plink=ORI&cooper=NAVER

청소년 도박중독 5년새 14배 폭증... 스포츠·게임도박 압도적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6051200001?input=1195m>

대구시, 시민운동장 복합스포츠타운 내 다목적체육센터 완공

<http://tk.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6/2020092600001.html>

성남시,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23000984>

안동체육회 운동선수에게 스포츠 심리기술 제공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2125800053?input=1195m>

불법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최대 5천만원

<http://mksports.co.kr/view/2020/977437/>

스포츠안전재단, 안전관리 전문역량 향상과정 개최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23_0001177289&cID=10501&pID=10500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성료

<https://www.news1.kr/articles/?4066505>

김천 스포츠대회 줄줄이 취소...소상공인 '직격탄'

https://srn.hcn.co.kr/user/news/BD_newsView.do?news_category=02&story_id=NS2020092200026&story_seq=0&soCode=114&socttSn=NS2020092200026&socttSeq=0

부산시, e스포츠 게임단 데이터 분석코치 육성한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645149>

알고보면 슬픈 대한축구협회의 보도자료 한 통

<https://www.sports-g.com/2020/09/25/%EC%95%8C%EA%B3%A0%EB%B3%B4%EB%A9%B4-%EC%8A%AC%ED%94%88-%EB%8C%80%ED%95%9C%EC%B6%95%EA%B5%AC%ED%98%91%ED%9A%8C%EC%9D%98-%EB%B3%B4%EB%8F%84%EC%9E%90%EB%A3%8C-%ED%95%9C-%ED%86%B5>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제정

<http://www.kowsc.org/news/articleView.html?idxno=922>

스포츠폭력 근절 캠페인

프로젝트 움직임 Project Umjik

고 최속현 선수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과연 무엇이 변했을까요?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고 문체부는 특별조사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책임져야 할 사람은 존재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많은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역시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네'라는 교훈을 얻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스포츠에서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프로젝트 '움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

1. 자신이 평소에 하는 운동이나 표현하고 싶은 동작을 촬영합니다. 사진 혹은 글도 대체 가능합니다. 자신을 찍어 올리기 부담스러우시면 몇 글자 쓰기 또는 자유로운 방법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계에서 폭력을 없애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2. 위의 의미와 방법을 복사해서 자신의 표현(동작, 글, 그림 등)을 SNS에 올립니다.
3. 다음 번 주자를 세 명 지목합니다.
4. 지목한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취지를 설명드리고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폭력이 사라진 체육계를 상상합니다. 존중과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스포츠계를 상상합니다. 지금 함께 움직여 주세요.

#스포츠인권캠페인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 및

지원활동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스포츠인권팀’ 소속

10여분의 인권변호사분들과 함께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가 들어오면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공동대책위원회

✉ forsportsreform@gmail.com

체육시민연대

✉ sports-cm@daum.net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만인이 즐기는 스포츠 세상, 체육시민연대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리 연대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체육시민연대는 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체육시민연대 활동에 든든한 디딤돌이 됩니다.**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서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 바랍니다.**

국민은행 086601-04-095940

예금주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sportscm.org/index.php?module=Inquiry&action=SiteInquiry&sMode=INSERT_FORM&iInquiryNo=2